

# 루/벤/스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그리스도 2

첨단 과학시대에 사는 우리는 육체의 움직임에 대해서 연속 사진이나 영화를 통해 매우 익숙하다. 움직이는 영상을 이용해 순간적 역동성을 박제시켜 언제 어디서나 분석해서 볼 수 있지만 4백년 전 그 시대에는 실제 모델의 움직임을 눈으로 확인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한편 일부 재력있는 화가들은 원시적 광학기계(카메라 옵스큐라)에 의존해 작품에 완성도를 높이기도 했다

이 작품에서 그리스도를 포함해서 상의를 벗은 인물들이 근육질의 몸매와 함께 뒤틀린 포즈를 취하고 있는 이유는 보다 더 상황을 드라마틱하게 표현하기 위함이며 평소에 일반인이 취할 수 없는 포즈를 구현해서 더욱 맹렬하게 느끼게 하기 위함이다. 시신으로 변한 예수의 육체는 전대 미켈란젤로가 추구했던 남성다운 근육질의 모습으로 다시 나타난다. 시신의 몸이라기 보다는 운동선수의 결정적 포즈같은 탄탄한 몸매의 예수는 하느님이 아담에게 불어넣었던 숨결처럼 하느님의 영만 받으면 당장이라도 다시 태어날 것 같다. 실제로 오른쪽 상단 백색 천을 입에 물고 예수님의 시신을 내리는 제자의 모습은 새 '아담'에게 숨을 불어넣는 하느님의 모습과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 죽음의 공포를 벗어난 듯한 예수의 모습이야말로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는 신호탄이 아닐까?

예수의 발을 어깨에 대고 두 손으로 감싸고 있는 여인은 생전의 예수님의 발을 향수로 닦아드렸던 막달레나 마리아가 틀림없다. 그녀의 오른 쪽 팔을 보면 살쥔 50대 아낙네의 팔뚝처럼 통통하다. 우리가 아는 현대적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무성영화에서 토키 영화로 넘어오던 시절 미인의 기준을 바꾼 여배우가 그레타 가르보였다. 그때까지도 미인의 정형은 동그랗고 귀여우며 살이 오뎅통 쥘 여배우들의 모습이 대세였다. 미인의 현대적 기준을 가늘픈 체형으로 바꾼 여배우가 바로 그녀였다.

아무튼 등장 인물 모두 비탄에서 초월한 듯 모두 단단하고 풍만한 모습으로 이 극적 장면에 조연으로 참례하고 있다. 한 인물 한 인물의 움직임을 순간적으로 정지시켜 십자가를 축으로 한 화폭에 한 장면으로 집대성을 이룬 루벤스의 천재성은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감탄을 금치 못하게 한다. 하기가 당시 르네상스 이후 바로크 시대에 이 정도의 실력이 없다면 화가 축에도 끼지 못했겠지만 그저 그런 아이디어 하나로 먹고 사는 이 시대의 어정쩡한 화가들은 꿈도 못 꿀 일이다.

그는 지금의 할리우드의 유명한 영화 제작자나 감독같은 삶을 살았다. 그의 공방은 연극무대나 영화촬영 스튜디오 같았고 그에게 작품 의뢰를 하려면 어느 누구라도 공을 많이 들여야 했다. 큰 스튜디오에서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분업화를 하는 것은 여러 분야를 아울러 제작하는 블럭버스터 영화 촬영 현장이나 다름 없었다. 밑그림을 그리고 전체적 인물의 기본은 제자들이 담당하였고 배경에 정물이나 오브제들은 그 수준에 경지를 이룬 작가들을 고용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얼굴이나 디테일한 부분은 본인이

직접 관여했다. 당시에는 미술학교가 따로 없고 도제제도로 재능있는 제자들을 키우면서 그들을 부러먹기도 했던 것이다. 루벤스가 어떤 화가보다 더 어마어마한 양을 그릴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이유였다. 생전에 2000여 점의 작품을 남긴 그는 그만큼 재력과 출중한 실력이 없었다면 이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유명작가 작품에 위작 논란이 많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부연해서 다른 얘기를 할까 한다. 몇 년 전, 가수라는 유명세를 타고 화투를 소재로 화가로서의 변신을 꾀한 가수가 대작(代作)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었다. 그는 아예 다른 작가에게 혈값을 주고 대신 그리게 하고 자기 작품이라고 비싼 값에 판 사건으로 사기나 아니냐로 법정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 미학자까지 동원되어 열띤 공방을 벌였었다. 현대미술은 이제 그 폭이 넓어져 작가가 아이디어를 내고 그 방면에 전문가들에게 의뢰하여 각종 재료를 이용해서 작품을 만들어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하는 예가 허다하다. 물론 제자들도 참여했다. 대작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판단에 따라 대작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예술행위를 하는 작가는 차고 넘친다. 그러나 그 가수의 작품은 굳이 그러한 프로세스가 필요한 작업이 아니었고 작가 스스로의 능력과 그만의 아우라가 필요한 작품이었다. 현대미술의 한 장르로 팝아트 작업이라고 강변하지만 그림의 소재만 '팝아트적'이지 분업을 필요로 하는 작업은 더더욱 아니었다. 화투를 소재로 한다는 아이디어 하나로 그 가수보다 월등히 필력이 좋은 작가에게 아주 싼값에 대작을 시킨 것이다. 그리고는 자신이 직접 그린 것으로 숨겼다.

우리나라의 저명한 전위 예술가 백남준은 '예술은 사기다'라고 했다. 전위 설치 예술가로서 반어법적 일갈인데 이 가수는 '진심으로' 이를 몸으로 시전했다. 그의 '대작 행위'를 현대미술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온갖

철학과 미학으로 둘러대며 혼자서 맞섰던 어떤 미학자도 대작(代作)자체를 어떤 실정법 위반행위로도 처벌할 수 없다는 원론적 문제점에 대해 용인했던 것이지 저렴한 임금으로 대작을 시킨 상도의적 사기성에 대해서는 날선 비판을 가했다. 법정 공방은 저작권을 누가 갖느냐의 문제로 법리적으로 판단해서 무죄로 끝나긴 했지만 예술행위를 값없이 여기고 비싼 값으로 판매한 그의 비상식적 양심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다.

루벤스는 자신의 공방에서 제자들에게 대작을 시켜 자신의 싸인만을 넣은 것이 아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의 능력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작품을 완결시킬 수 있는 안목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치졸한 행위를 루벤스와 비교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지만, 자신의 과욕을 가감없이 보여준 그는 자신의 오리지널 히트곡보다 남의 노래나 번안곡이 많다는 것도 여느 가수와 다른 점이긴 하다.

글/김웅배 안드레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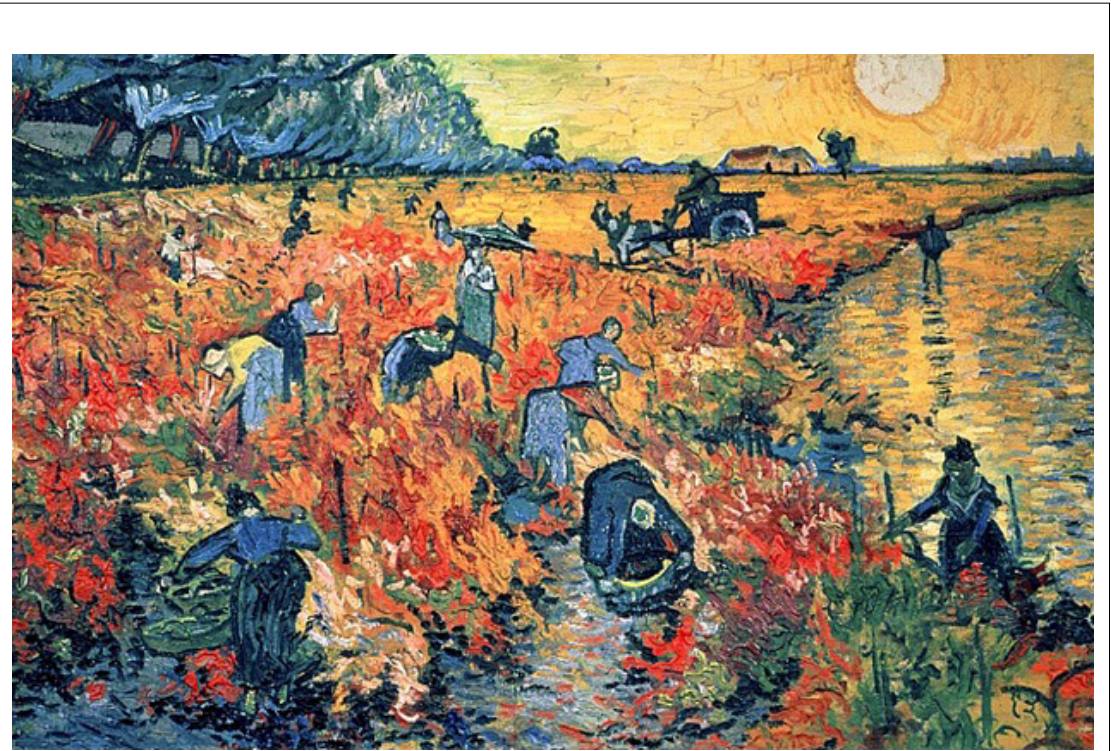


연중 제 27주일  
2023년 10월 08일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7:00 PM 수 ~금-9:00 AM  
주일(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4:00PM 일요일(영어)-9:00AM (한국어)-11:30AM  
고해성사-11:10AM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Tel : 732-356-1037 #Email: office@edisonkcc.org  
근무시간: 화-금요일 (9AM~2PM)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용범 사도요한  
본당부제 윤석로 이나시오  
평협회장 채희백 바오로



〈아들의 붉은 포도밭〉 빈센트 반 고흐, 1988

〈 이번 주 전례안내 〉  
# 제 1독서 이사야서5,1-7  
# 화답송 시편 80(79),9와 12.13-14.15-16.19-20(© 이사 5,7ㄱ 참조)  
후렴: 주님의 포도밭은 이스라엘 집안이라네.  
# 제 2독서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4,6-9  
# 복음 환호송 요한 15,16 참조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아 세웠으니, 가서 열매를 맺어라. 너희 열매는 길이 남으리라.  
# 복음 마태오21,33-43  
# 성기번호 입당 439 봉헌 212 성체 167 파견 64



